



톡톡

부산체육

August 2020 VOL. 06

사람과 사람 ①

**한국 태권도
살아 있는 전설,
내 인생의 화양연화**

부산 최초 태권도 공인9단 승단
성백규 원로 관장



사람과 사람 ②

**기적을 만드는 도전,
한계를 넘는 출사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소속
요트 국가대표
하지민 선수



부산체육의 발자취

국제 스포츠 도시
부산의 비상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 톡

**손처럼 정교한 발기술
네트 오가는 짜릿하고
화려한 플레이!**

부산 최초 족구실업팀
더이스트



교육 톡 - 체육인재육성사업

① 전문역량



② 취업역량



③ 국제역량



이달의 이슈 - 스포츠 인권 들여다보기!



스포츠 전국 투어 - 국토람방 자전거여행



사람과 사람 ①



한국 태권도 살아 있는 전설,
내 인생의 화양연화

부산 최초 태권도 공인9단 승단
성백규 원로 관장

1934년 6월 14일생, 1950년대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할 만큼 수재였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1958년 부일체육관을 창설, 수만 명의 유단자를 키워낸다. 100여 명 가량의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를 양성해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을 이끈 성백규 관장. 1993년 6월 19일 부산 최초로 태권도 공인9단을 승단한 그는 올해 만 86세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첫째 아들 성승제 관장 역시 태권도 공인9단을 취득, 수십 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해왔다. 과히 한국의 태권도의 역사, 발전과 궤를 같이 한 부자(父子)의 일평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운명과도 같은 태권도를 향한 강한 끌림

전교에서 1, 2등만 진학한다는 경남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태권도(당시 공수도)에 더 빠져 있으면서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성백규 관장. 앞으로는 세계화의 시대,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부친(성만환 : 초대 항도중·고등학교 교장 겸 이사장)의 권유로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때 까지만 해도 태권도가 삶의 팔 할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영특한 아들이 워낙 태권도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걸 알았던 터라 아들을 위해 항도 중학교에 비어 있던 교실을 흔쾌히 내줬다. 그토록 원하는 태권도를 원 없이 해보라는 취지에서였다. 본인 수련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어느새 입소문을 탄 건지 자신들도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며 중·고등학생들이 찾아왔다. 이것이 부일체육관의 시초다. 초창기 50여 명이던 관원생이 100~200명으로 늘었고 1965년 전성기 때는 하루 700명에 달했다.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관원생을 받았다면 아마 꽤 많은 부를 축적했을 테다. 하지만 성백규 관장의 목표는 오로지 태권도 수련과 올바른 태권도 전파에 있었다. 전국대회 준비를 앞두고 자비를 털어 제자들을 알뜰히 챙기고 먹이고 살피는 데는 성백규 관장을 따라올 스승이 없었다. 제자들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돈을 아낌없이 썼던 그다.



☞ 태권도를 향한 애정, 열정으로 가득한 화양연화(花樣年華) 그 시절

수십 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별의별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성백규 관장. 이승만대통령 탄신80주년기념 부일체육관 태권도시범대회에서 실감나는 시범을 보이려고 진짜 총을 쏘고 피하는 장면을 연출하다가 총알이 목을 스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일,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땐 그랬지!”라며 웃어넘기지만 돌이켜보면 왜 그리 무모했는가 싶다. 그만큼 태권도를 향한 애정과 열정, 집착이 넘쳐난 시절이었다. 매 순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한 터라 후회는 없다. 1963년 태권도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이 되면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했고 1990년대부터 초등학교 체육교과 과정에 채택되면서 태권도의 전성기를 맞았다. 부산 태권도의 산증인이자 대한민국 태권도 발전을 견인해온 성백규 관장, 그와 함께 태권도로 한 시절을 풍미한 동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지난 세월 혼신을 다해 키워낸 태권도 제자들은 세계 각지, 전국 곳곳에서 제자 양성에 힘쓰는 중이다. 부산 태권도의 거목 성백규 관장은 그의 지도하에 태권도를 익힌 솔한 제자들과 한국 태권도 역사 발전의 궤를 함께 한 이들의 마음속에 태권도의 살아 있는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은 흘렀고 성백규 관장의 몸은 노쇠했지만 태권도계에서 그의 지난 눈부신 활약상은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테니 말이다.



부일체육관 유단자모서수련 _1959. 8. 12

사람과 사람 ②



기적을 만드는 도전, 한계를 넘는 출사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소속 요트 국가대표
하지민 선수

망망대해(茫茫大海)에서 바람과 물결에 맞서 힘 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간다. 요트가 비인기종목인 한국에서 요트 선수로 활동하는 건 참 외로운 시간이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소속인 요트 국가대표 하지민 선수, 국내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단연 으뜸으로 손꼽힌다. 대한민국 요트계의 한 획을 그으며 그만의 새로운 이정표를 구축해온 하 선수를 만났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순간, 요트 매력 흠뻑

요트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오른다. 부산일보에 난 여름캠프 광고를 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두 살 위인 형과 함께 찾아간 주니어요트클럽, 당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활동할 수 있던 터라 2년 동안 형이 활동하는 걸 지켜본 뒤 하 선수도 가입했다. 요트선수가 된 뒤 제일 처음 나간 대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수에서 진행된 전국봄철요트경기대회였다. 일 년에 세 번 정도 요트대회에 나간 걸로 기억한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업과 요트선수를 병행하던 하 선수는 그해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요트선수로 진로를 결정한다. 하 선수는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요트 레이저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간 숱한 국내외 요트대회에 참가하며 진귀한 역사적 장면을 연출한 하 선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무엇일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었어요. 대회가 열리기 3개월 전부터 현지에서 가서 적응 훈련을 하는데 훈련 장소나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했죠. 게다가 당시 허리 통증도 심했던 터라 현지 적응이 더 쉽지 않았죠. 모든 게 제겐 너무 최악이었는데 주종목인 레이저급에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했죠. 결과가 어떻든지 나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국제적인 감각 능력 갖추는 일, 어릴 때부터 선행되어야



“하 선수가 요트선수로 워낙 체격 조건이 좋지만 체력조건만 받쳐 준다고 훌륭한 요트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외국 스포츠이기 때문에 요트 경기 시 문제가 발생하면 심판에게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원활히 전달하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하 선수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온 터라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국제적인 요트선수로 발돋움하려면 영어는 필수인 셈이죠.”

하 선수가 초등학교생일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를 지켜본 이동우 코치의 칭찬이 이어졌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형 매니지먼트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통상인데 지금껏 하 선수는 스스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다. 그가 일찌감치 아시아 정상권에는 올랐지만 세계무대의 벽을 넘기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016년 3월 4일 하 선수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개최된 유럽선수권대회 남자부 레이저 종목에서 한국 요트 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일궈낸다.

“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선수 생활을 하고 싶어요. 다행히 다른 운동 종목에 비해 요트는 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 한다면 수명이 꽤 긴 편이거든요. 지난 2016년에 진행된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대회에서 54세가량인 최고령 요트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만 봐도 희망적이죠. 늘 무너지지 않게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집중하면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죠. 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요트선수하면 제 이름을 떠올릴 만큼의 실력을 선보이고 싶어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스포츠 톡



손처럼 정교한 발기술 네트 오가는 짜릿하고 화려한 플레이!

부산 최초 족구실업팀 더이스트



족구의 지론은 ‘발을 손처럼 써라’다. 지난 2018년 부산 최초로 창단된 족구실업팀 더이스트(The-East), 국내 최고의 공격수이자 코치인 장한빈 선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족구 훈련에 매진한다는 족구 최강팀이다.



주3회 정기적 족구 훈련 매진, 좋은 성적은 회사 홍보로



(주)일등그룹 장성완 전무 이사는 더이스트 실업팀 단장이다. 더이스트를 창단한

(주)일등그룹은 더이스트 이전에 2015년 7월 일등클럽을 창단해 전국구 족구 스타 선수를 꾸준히 영입하면서 그동안 이름 있는 족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부산에는 족구 훈련을 할 체육관이 없어 양산까지 이동한다는 장성완 전무이사, 양산 실내운동장에서 연습을 꼭 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야외 코트로 장소를 옮겼다고 한다. 먼저 5~6km 달리기로 체력 훈련을 한 뒤 연습게임을 한두 번 하면 이내 시간은 밤 10시에 다다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침 운동에도 열심이었던 그들이다. 마냥 족구를 즐기는 이들이 모인 친목 동호회가 아닌 직업적으로 족구를 하는 실업팀이다 보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반드시 일을 마치고 훈련에 참가한다.

지역 족구 발전에 기여하는 팀으로 기억되길

전국에서 날고 깃다는 족구선수들로만 구성된 더이스트는 공격수 장한빈과 이재현, ‘족구의 꽃’으로 불리는 세터이자 감독인

임상욱, 세터 이재찬, 우수비에 김아름, 원형연, 좌수비에 정종윤, 이준우 선수로 구성돼 있다.

“체력 훈련이며 연습 경기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발로 공을 차고 받는지 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팀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솔하게 보며 분석하는 편이죠. 투수가 수천 개의 공을 치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저희 훈련 과정도 마찬가지로 예요. 훈련을 거듭하면서 몸의 유연성과 순발력뿐만 아니라 저만의 장점, 기술을 키우는 거죠.”

장한빈 선수의 설명이 이어졌다. 더이스트는 2018년 부산슈퍼컵 족구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부산슈퍼컵족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훈련으로 기본에 충실할 것!

더이스트 선수들의 일상과 훈련 과정을 보면 지극히 기본에 충실하다. 낮에는 일에 열중했고 훈련이 있는 날은 운동에 집중했다.

평소 성실하고 묵묵하게 쌓아 올린 기본기가 본 경기에서 빛을 발하리란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경기 직전에는 지나치게 긴장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에 신경을 쓴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파이팅!” “나이스 파트너!” “굿 샷!” 등 매 순간 동료들을 격려하는 더이스트.

“족구를 하면 뭐가 좋을가요? 유산소운동에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고 단체 운동이다 보니 사회성과 팀워크를 키우고 발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운동이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족구입니다.”

‘족구 사랑은 기본, 실력은 최강’이라는 말이 제격인 더이스트. 부산에서는 단연 최우수팀이고 전국 족구실업팀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 그들에게 자만은 금물,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일하고 쉬 없이 훈련을 이어나갈 뿐이다. 네트 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손보다 정교한 발기술로 오고 가는 공을 떠올린다. 더이스트의 박진감 넘치는 화려한 플레이를 볼 그날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스포츠 전국 투어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끌고 나가 바람을 맞으며 질주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하는 자전거, 두 바퀴에 몸을 싣고 달리다 보면 오감(五感)으로 생동하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자동차로는 느낄 수 없던 또 다른 세상, 네 바퀴로는 갈 수 없던 숨어 있던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낮은 눈높이로 즐겨보자. 이제 남은 일은 신나게 페달을 밟는 일뿐이다.

두 바퀴로 떠나는 전국 풍경 속 힐링

국토탐방 자전거여행



대표적인 국토종주 자전거길



한강 종주자전거길

한강 종주자전거길(서울 구간)은 강을 거슬러 오르지만 오르막이 없고 노퍽이 넓어, 두 바퀴와 더불어 떠나는 여행은 공원을 산책하듯 편하고 아늑하다.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동안 수도 서울의 역사와 함께 흐르는 한강은 한민족의 젖줄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그 젖줄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여행은 더욱 역동적이고 감동적이다.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코스다. 각자 수준에 맞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언제든지 전철을 이용해서 귀가할 수 있는 것이 이 코스의 최대 장점. 팔당호의 물이 이포보 아래까지 이어지고, 이포보가 가둔 물이 호수를 이루어서 풍광 또한 시원하고 막힘이 없다.

낙동강 종주자전거길

낙동강 종주자전거길은 사계절 풍경이 주마등처럼 흐르는 한 편의 대하소설이자 서사시다. 하늘조차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는 뜻의 경천대는 낙동강 물길 중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다는 곳. 소백산 줄기를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산봉우리는 경천대에 이르러 동양화와 다름없는 풍경을 완성한다. 상주 상풍교에서 새재자전거길과 만나는 낙동강 자전거길은 하회마을과 회룡포를 지나 경천대에 오른 후 낙동강하굿둑에서 국토종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아라 종주자전거길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위대한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인천 아라서해갯문에서 시작된다.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21km 길이의 아라자전거길은 라이더들에게 환상의 자전거길로 불린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16개의 '이야기가 있는 다리'는 아라자전거길이 자랑하는 명물. 꿈결처럼 달려온 자전거길은 아라한강갯문에서 한강종주자전거길(서울 구간)과 운명처럼 만난다.



새재 종주자전거길

자전거길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거리가 멀고 가파른 고개가 2개나 있어서 상당히 힘이 드는 코스다. 탄금대, 수주팔봉, 수안보, 이화령, 불정역 등 볼거리가 많고 훌륭하지만 경치를 즐기다가 자칫하면 야간 라이딩을 해야 하는 수가 생긴다. 시간과 체력 안배가 중요한 코스다. 그렇다고 너무 내달리기만 한다면 여행이 아니라 체력 단련이 되기 십상. 남한강, 달천, 오가천, 조령천, 영강 그리고 낙동강변을 이어서 달리는 환상의 코스다.



남한강 자전거길

서울 시내에서 양평까지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하는 경의중앙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전거 애호가들과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달의 이슈 - 스포츠 인권 들여다보기



인간으로 누려야 할 자존감, 스포츠 인권 들여다보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에서 특히 인권 침해 문제는 굉장히 오래도록 반복돼 왔다. 최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고(故)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경주시청 지도자와 선배들의 폭설과 폭행,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큰 충격을 불러왔다.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 다시금 되새겨볼 때다.

? 스포츠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

? 스포츠폭력 예방법!

- 학생선수**
폭력은 용인될 수 없음을 알고 폭력의 유형과 사례, 예방법, 피해 발생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학부모**
자녀가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자녀를 도와야 한다.
- 스포츠 지도자**
어떤 이유로도 운동부 내 폭력을 용인하지 말아야 하며,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와 체계에 따라 폭력 피해를 처리해야 한다.
- 학교장**
폭력 발생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예방 정책>과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스포츠 조직과 교육청**
스포츠 단체와 학교가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사회적 분위기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

- 동의는 기본적으로 ‘예’와 ‘아니오’로 나뉜다. 동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약점을 잡아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예 : 너 그때 뭔가 숨겼잖아. 그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지?)
- 선배나 지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의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옳지 않다. (예 : 너 이번에 경기에 참가 후보지? 참가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 집에 잠깐 들르지 않을래?)
- 협박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얻어낸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예’는 동의가 아니다.



부산체육의 발자취



국제 스포츠 도시 부산의 비상과 부산광역시체육회



01 외화내빈의 부산 체육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위시한 부산의 체육인들에게 그 자체로 보람과 성취의 의미를 넘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남겼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신규로 건설되거나 개보수를 거쳐 새롭게 단장된 경기장들이 부산 체육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관심도 높아져 부산의 전반적인 체육 인프라가 크게 향상됐다. 무엇보다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대규모 종합경기대회 개최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그 어떤 대회라도 손색없이 치러낼 수 있는 우수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자 단체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됐으며, 주요 국제대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계기로 삼았다.

02 부산 체육의 체질 강화와 체육회관 시대의 개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08년 7월 25일 체육회관을 완공,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물론 지역 체육계 전체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1963년 구(舊)시청 교육위원회에 설치된 임시사무실에서 출발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후 45년여 동안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며 불편을 겪어 왔다. 체육회관의 준공에 맞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사무실을 이전, 한결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했으며 산하 가맹경기단체 중 20여개가 체육회관에 함께 사무실을 마련함으로써 사무환경은 물론 훈련여건을 크게 개선시켰다.

03 부산 체육의 선진화와 올림픽대회 유치 운동의 시동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전개해오던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 체육인 지원사업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갔다. 2009년 발대식을 갖고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추진에 들어간 부산 꿈나무육성사업의 지속적 전개, 2004년 시범 운영단체로 선정되면서 스타트를 끊은 부산스포츠클럽 운영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06도하아시아경기대회, 2010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등 2000년대 두 번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부산 출신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은 무려 64여 개에 달했다. 2004아테네올림픽대회, 2008베이징올림픽대회, 2012런던올림픽대회에서도 금메달 5개를 포함 야구·축구·핸드볼 등의 단체종목을 제외한 개인전·단체전에서 총 10여 개의 금메달을 거둬들였다. 특히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에서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합해 남녀 펜싱에서만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따는 성과를 올리면서 종합순위 5위라는 우리나라의 원정 올림픽대회 참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달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04 세계적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체육행사 유치

올림픽대회 유치 선언 이후 부산은 2008년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 등 대규모의 글로벌 체육행사를 연달아 유치,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과 세계 스포츠계에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08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6일간 개최된 2008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에는 전세계 101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참가국 면에서만 보면 총 24개국이 참가한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넘어서는 최대 행사였으며, 부산은 이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다. 한편 2008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기간 중 IOC세계스포츠교육문화포럼을 함께 개최해 IOC위원은 물론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장, 유네스코 고위 관계자 등 세계 스포츠·문화·교육계의 유력 인사가 대규모로 부산을 방문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교육 톡 - 체육인재육성사업



체육인재육성사업

체육인재육성사업은 스포츠 인재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실현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성장을 도모합니다.



01 전문역량

- **스포츠빅데이터 과정** 스포츠자료분석 및 프로그램 교육·실습을 통한 스포츠빅데이터 활용 능력 배양
- **스포츠영상분석 과정** 스포츠 영상자료의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스포츠영상분석 전문 역량 배양
- **체육행정과 연수과정** 스포츠 조직 구성원으로서 체육현장 업무지원·관리 능력 배양
- **스포츠멘탈코치 양성과정** 선수의 심리관리와 조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멘탈트레이닝, 멘토링 등의 교육을 지원

- **건강운동관리사 역량강화과정**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하는 스포츠 손상·재활 이해 및 기술능력 배양
-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사업**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방법과 실무능력 배양할 기회를 제공
- **해외우수지도자 초청강습회 지원사업** 해외우수지도자 초청 강습회를 개최해 해외선진 기술과 지도방법을 교류하는 장을 제공



02 취업역량

- **챌린지 코스** 체육인재가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태도·외국어 능력 등 기본역량강화 교육 제공
- **직무간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체육인재 육성사업, 우수 교육 수료생 대상 분야별, 일체형 및 OJT연수과정 제공

- **스포츠사회적기업 인증과정** 스포츠 관련 창업준비자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정보 및 창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취업준비 순회교육** 체육 관련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진로설계·취업정보·경력관리 등 교육 제공



03 국제역량

- **국제스포츠인재양성(역량강화과정)** 국제스포츠인재양성(역량강화과정) : 국내외 외국어 및 스포츠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스포츠인재로서 역량강화
- **국제스포츠인재양성(학위과정)** 스포츠행정실무 석사학위과정 지원을 통한 국제 네트워킹 확대
- **국제스포츠인재양성(전문과정)**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진출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제공

- **개도국 및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 글로벌한 스포츠행정가를 양성시켜 국제스포츠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 **국제심판양성(역량강화 교육과정)** 경쟁력 있는 국제심판 양성을 위해 영어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제공
- **국제심판양성(자격취득 지원)** 국제심판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자격취득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제공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